수덕사 소조불서 고려 희귀 경전 발견



정각 스님, 11월 3일 수덕사 학술대회서

수습된 '묘법연화경' 최이가 발문

'자비도량참법' 사경본 처음 확인

최은령 위원, 서산 일락사 여래상 성분조사 결과 철불 아닌 '금동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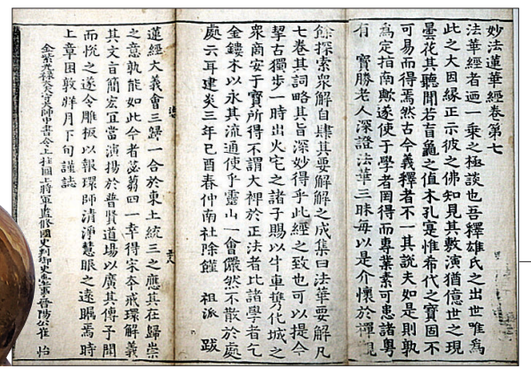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 복장 유물에서 고려시대 희귀 경전들이 확인됐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은 11월 3일 충남 홍성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덕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수덕사 소조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고찰'을 통해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 복장물의 연원과 가치를 분석했다.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은 지난 2017년 3월 수덕사 근역성보관 연구원들에 의해 복장물이 수습됐다. 당시 복장물로는 △다라니 △유리구슬 △개금발원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제79~81, 91~93 △〈묘법연화경〉 3종 △〈사아함모초해〉 권하 △〈자비도량참법〉 권제7 등이 나왔다.

정각 스님의 조사 결과 고려시대 희귀 경전들이 대거 확인됐다. 〈묘법연화경〉 3종의 경우 1240년 간행된 권7 완본이 주목된다. 권7 완본에는 당시 권력자 최이(崔怡)의 발문이 실렸는데 동일 인출본 5건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과 복장 유물로 수습된 〈묘법연화경〉. 해당 〈묘법연화경〉에는 당시 권력자 최이의 발문이 담겼다.

정각 스님은 "〈묘법연화경〉권제7은 1240년 최이가 조판을 명령해 간행한 것으로 표지 가장자리 표현에 공민왕대에 정착된 태선-세선-당초문-세선-태선-세선 형식이 쓰이고 있어 경전 인성 시기는 1377년 즈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각국사 의천이 송에서 제작·간행한 교장 중 하나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권제79~81, 91~93이 수습됐다. 이중 권제79, 80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유일본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복장 수습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교장 원간본을 재판각한 것으로 송에서 유래한 판각 외에 한국 판각의 〈대방광불화엄경소〉 교장본이 고려 말~조선 초에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수습된 〈자비도량참법〉 사경본도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자비도량참법〉은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 약 10여 종의 목판본이 간행됐지만 그간 사경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각 스님은 "〈자비도량참법〉 사경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행 13자 판식은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됐다. 수덕사 복장 출토의 사경본은 고려나 조선 초에 제작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덕사 소조 여래좌상은 15세기 이후 조성된 불상"이라며 "불상의 복은 1390년 당시 조성된 모(某) 불상의 불복장 내지 1489년 조성된 또 다른 불상의 불복장이 수습돼 현재 수덕사 소조 여래좌상 복장에 납입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덕사 말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 중 서산 일락사 여래좌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도 눈길을 끌었다.

문화재청 최은령 문화재감정위원은 '서산 일락사 금동여래좌상 연구'에서 "서산 일락사 미타전 여래상은 최근까지 철불로 알려졌지만 성분분석을 통해 금동불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락사 금동불상은 고려후기 13세기 불상의 전통을 계승하여 세부표현에서 단순하고 절제된 형식으로 변모돼 14세기 충청 지역의 공방서 조성됐을 것"이라며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292년, 1302년경의 다라니는 일락사 금동불상의 조성시기를 14세기로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동반 자료"라고 설명했다.

한편,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정묵)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가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의 연구' △김요정 충북대 초빙교수의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의 수종과 연륜연대 분석' △이승희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김지혜 수덕사 근역성보관 학예연구사의 '당진 성당사 제석천도 연구'가 발표됐다.

불암사·칠보사 불보살상 보물 지정

문화재청 지정 공고
두 불상·보살상 모두
조선 중기 대표 수작





보물 제2003호로 지정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좌상〈사진 왼쪽〉과 보물 제2004호로 지정된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사진 오른쪽〉.

17세기 조성된 불보살상 2구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4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또한 "보물 제455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의 명칭은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로 변경했다"고 고지했다.

보물 제2003호로 지정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세기 전반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해 총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49년(인조 27년)에 완성한 불상이다.

높이 67cm의 단아한 규모에 머리에는 연꽃과 불꽃문양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寶冠)을 썼으며, 가사는 두벌 겹쳐 입은(이중착의법) 모습에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렸다. 전체적으로 비례가 알맞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양감이 돋보인다.

얼굴은 이마가 넓고 턱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역삼각형을 이루었으나, 날렵하고 갸름하게 처리한 턱선, 높게 돌출된 코, 자비로운 인상에 실재감 있는 이목구비의 표현 등 1650년대를 전후로 아담하고 현실적인 조형미를 추구한 무염이 참여한 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불암사 목조관음좌상은 정확한 제작 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해 17세기 중엽 불교 조각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보물 제2004호로 지정된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622년(광해군 14년) 광해군의 부인인 문성군부인 유 씨(장렬왕후)가 왕족들과 친정 부모의 천도를 목적으로 발원해 왕실 원찰(願刹)인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한 11존(尊) 불상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玄眞)과 수연(守衍), 응원(應元), 인균(印均) 등 당대 유명 조각승들이 합작해 만든 불상으로, 조각승들의 제작 특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다.

머리와 상반신을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에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고 왼손은 다리 위에 둔 항마촉지인을 한 모습이다. 상반신은 허리가 짧고 어깨가 넓지만 하반신은 다리가 높고, 턱을 수평으로 깎은 네모진 얼굴에 양 볼이 볼록하게 양감이 살아 있으며, 작고 가는 눈에 오뚝한 코, 미소가 있는 작은 입 등 단정하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 등은 현진과 수연의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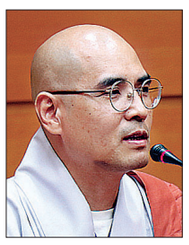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기법이 화려하지 않고 비교적 간결하지만 중후한 기품과 위엄이 느껴지며, 17세기 전반 불상 중에서 수준 높은 작품성을 보여준다"면서 "예술적 가치가 월등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탄허 교육관 '법당 100채보다 승려교육'

자현 스님, 10월 26일 탄허강숙 세미나서



"탄허의 교육관은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승려교육이 중요하다'는 강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승려교육의 확대와 정립만이 불교 정화를 완성하고, 불교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탄허의 교육인식에 따른 결과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사진〉은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탄허강숙(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주최로 열린 2018 학술세미나서 탄허 스님의 교육관을 이 같이 정리했다. 세미나는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현토역해본의 가치와 의의'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현 스님은 '한암과 탄허의 승가교육이념과 실천양상'을 주제로 발제했다.

자현 스님은 세미나에서 한암 스님의 교육관에 대해 선 수행을 중심으로 교학과 계율을 아우르는 것으로 봤으며, 탄허 스님의 교육관을 '화엄학을 바탕으로 한 동양학 전체의 회통'으로 정의했다.

자현 스님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이 같은 교육관을 잇는 매개가 일제강점기 상원사에 세워진 '삼본사연합승려수련소'임을 밝혔다. 자현 스님에 따르면 한암 스님은 삼본사수련소 설치를 허락하지만 실질적인 방식과 교육은 한암에 의해 일제 영향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탄허 스님이 한암 스님에 의해 삼본사수련소 조교로 활동하며 경전을 수학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암 스님의 불교관이 탄허 스님에게 계승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삼본사수련소의 경험은 이후 탄허 스님이 1956년 4월 월정사에 오대산수도원을 개설하고, 불교 전통강원 교재를 포함해 총 18종 78권에 달하는 경전 번역에 매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스님은 "탄허는 불교정화와 이후 혼란기 속에서 교육을 통한 한국불교의 재정립을 추구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신이 몰락하는 그의 유년기 이후 현실문제와 관련해 불교중심의 동약학 회통과 부활까지도 모색했던 것"이라며 "이는 탄허의 시대적 요청과 문제의식을 뛰어넘는 온고지신적 교육관에 따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돈의동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